

# 미국 콘텐츠 산업동향

CONTENTS INDUSTRY TREND OF USA

한국콘텐츠진흥원  
미국사무소



**kocca**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 주간 심층이슈

## 『할리우드 영화산업의 세금혜택 현황』

### ◎ 작성취지

- 미국 정부에서 시행하는 세금혜택제도를 분석함으로써 세제지원을 통한 할리우드 영화 시장의 발전상을 살펴보고 한국의 영화산업에 어떻게 적용 가능한지 알아보고자 함

### ◎ 작성순서

- 들어가기
- 해외 영화산업 세금혜택제도 현황
- 미국 내 영화산업 세금혜택제도 현황
- 정리 및 시사점

## 1. 들어가기

### ■ 세금혜택으로 인한 영화산업의 부흥

- 전 세계의 영화산업의 중심지인 캘리포니아에서는 영화산업의 부흥을 위해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며, 그로 인해 영화산업이 많은 발전을 이루었고, 최근 다시 세금혜택제도를 강화하였음
- 이는 영화산업 발전을 위해 주정부로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일 중에 하나이며, 많은 영화인들이 캘리포니아로 몰리는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함
- 미국의 다른 주와 캐나다는 물론 전 세계가 이와 비슷한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부가가치가 큰 산업으로서 영화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음

## 2. 미국 내 세금혜택 현황

### ■ 미국 영화산업의 중심, 할리우드 세금혜택 현황

#### ○ 캘리포니아주의 세금혜택 배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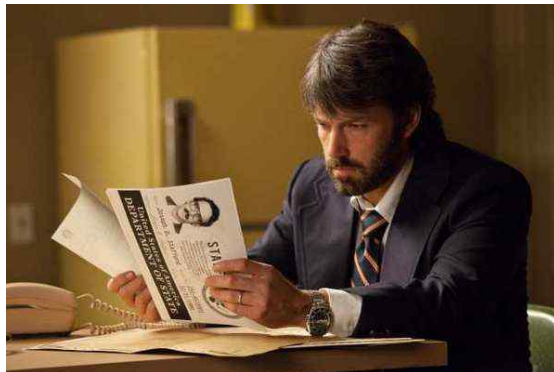
- 최근 경제 침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으로 끝나는 캘리포니아 영화와 TV 세금혜택을 2년간 더 연장하기로 캘리포니아주 하원에서 70 대 4의 압도적인 표 차이로 승인을 하였음
-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1억 달러로 한정되어 있는 이 기금은 세금 혜택 신청자들 중 무작위로 선정 기금이 있는 동안 혜택을 주게 됨
- 현재 캘리포니아주에서는 최대 25%의 세금혜택을 주고 있으며, 타주들도 이와 비슷한 혜택이 적용되고 있음
- 영화, 미니시리즈, 새로운 TV 시리즈 등은 20%의 세금공제 받고 있음
- 타주에서 캘리포니아로 프로덕션을 옮기는 TV 시리즈와 독립영화에는 25%의 세금공제 혜택을 부여함
- 7,500만 달러 이하 극장용 영화와 1,000만 달러 이하 독립영화에 세금혜택을 위해 1억 달러의 재정이 확보 되어 있으며, 더 많은 세금혜택과 연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세금혜택으로 편성된 1억 달러 예산 중, 100만 달러에서 1,000만 달러 규모의 독립영화들에게는 총 1,000만 달러의 예산이 편성되며, 7,500만 달러 미만 규모의 영화에는 영화 규모의 20%를 지원하고, TV 영화도 그 규모의 25%의 혜택을 주고 있음
- 이는 7,500만 달러 이하 규모의 영화에만 혜택을 줌으로써 대형 스튜디오의 작품들은 지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함
- 이는 대형 영화들이 타주 혹은 해외로 프로덕션을 옮기는 이유가 되기도 함

- 캘리포니아에는 선셋리뷰 프로그램이 있어 주 정부에서 주는 세제 혜택의 존폐 여부를 매년 감독하며, 2014년 6월 30일까지 연장하는 안건이 통과됨

※ 선셋리뷰란, 세금혜택제도의 실용성과 가치를 측정 및 분석해 현 제도의 연장 혹은 폐기를 결정하는 프로그램

## ○ 캘리포니아주의 세금혜택 현황

- 감독협회, 배우협회 등 영화인들의 조합에서는 5년간의 세금혜택 연장안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연장안 없이는 캘리포니아의 영화산업은 미국 내 다른 40개의 주와 해외 국가들과 경쟁하기 힘들며, 현재 영화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수 천, 수 만 명의 종사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음



<캘리포니아주 세금혜택을 받아 제작된 영화, 아르고>

- 322개의 신청자 중 28개의 프로덕션이 1억 달러의 세금혜택을 받게 되었으며, 이 때문에 캘리포니아주 내의 일자리를 지키고 주정부의 세금도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 Los Angeles Economic Development Corp. (LAEDC) 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영화관련 세금혜택으로 지난 2년간 \$3.8 Billion (한화 4조원) 가치의 경제 활동(영화산업에 직접 또는 간접적인 경제활동 - 로케이션, 스튜디오, 관광, 및 포스트 프로덕션 등등)이 영화산업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20,000개의 영화산업과 관련된 고용 창출 및 \$200 Million

- (한화 2,000억 원)의 세금을 거두어 들였다고 밝힘
- TV 드라마, <바디 오브 프루프>는 700만 달러의 캘리포니아의 세금혜택을 받아 촬영지를 미국동부 로드아일랜드에서 로스앤젤레스로 옮기게 되었음
  - 이처럼, 주정부에서는 세금혜택제도를 통해 프로덕션을 유치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 캘리포니아의 영화산업은 수 만개의 일자리를 창출 했을 뿐만 아니라 영화제작부터 배우, 미용사, 디자이너, 포스트 프로덕션, 관광까지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음
  - 2007년부터 2008년 동안 극작가들의 파업으로 인해 21억 달러의 경제적 손실을 가져왔는데, 이는 캘리포니아 경제에 큰 영향을 끼칠 정도의 규모였음
  - 2008년에는 160편의 극장용 영화와 320편의 TV 프로그램이 제작되었으며, 이로 인해 2,500만 달러의 수익창출과 167,000 고용 창출 기회가 마련됨
  - 이는 2007년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총 529편의 영화와 TV 프로그램에 비해 적은 숫자임
  - 캘리포니아와 타주 및 해외에서는 세금혜택과 여러 재정적 보조를 통해 미국 내, 특히 캘리포니아 내로 프로덕션을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음
  - 2010년까지 캘리포니아는 타주의 세제혜택 증가로 인해 프로덕션의 유치를 잃고 있음

### The Ones That Got Away

Here is just a sampling of recent and upcoming films that were filmed wholly or largely outside of California. Their primary shooting locations are listed in parentheses, though in many cases, portions were filmed elsewhere.

|  |   |   |
|--|---|---|
| <i>Battle: Los Angeles</i> (Louisiana)   | <i>Hall Pass</i> (Georgia)  | <i>She's Out of My League</i> (Pennsylvania)    |
| <i>The Blind Side</i> (Georgia)  | <i>Harry Potter and the Half-Blood Prince</i> (England)           | <i>Shutter Island</i> (Maine and Massachusetts) |
| <i>Captain America</i> (England)   | <i>The Incredible Hulk</i> (Toronto)                              | <i>Take This Waltz</i> (Toronto)                |
| <i>The Conspirator</i> (Georgia)   | <i>The Informant!</i> (Illinois)                                  | <i>Terminator Salvation</i> (New Mexico)        |
| <i>Cowboys &amp; Aliens</i> (New Mexico)   | <i>Inglourious Basterds</i> (Germany)                             | <i>300</i> (Montreal)                           |
| <i>The Curious Case of Benjamin Button</i> (Louisiana)   | <i>Juno</i> (Vancouver)   | <i>Twilight Saga: New Moon</i> (Vancouver)      |
| <i>The Dark Knight</i> (Chicago)   | <i>Killers</i> (Georgia)  | <i>Twilight Saga: Eclipse</i> (Vancouver)       |
| <i>Fantastic Mr. Fox</i> (London)  | <i>The Last Song</i> (Georgia)                                    | <i>Up in the Air</i> (Missouri and elsewhere)   |
| <i>Footloose</i> (upcoming remake; Georgia)  | <i>Leatherheads</i> (North and South Carolina)                    | <i>Watchmen</i> (Vancouver)                     |
| <i>For Colored Girls Who Have Considered Suicide When the Rainbow Is Enuf</i> (New York and Georgia) | <i>Marley &amp; Me</i> (Pennsylvania and Florida)                 | <i>Whip It</i> (Michigan)                       |
| <i>Gran Torino</i> (Michigan)  | <i>Night at the Museum: Battle of the Smithsonian</i> (Vancouver) | <i>Why Did I Get Married Too</i> (Georgia)      |
| <i>Green Lantern</i> (Louisiana)   | <i>Paul Blart: Mall Cop</i> (Massachusetts)                       | <i>The Wrestler</i> (New Jersey)                |
|  | <i>Sanctum</i> (Australia)  |   |

<타주의 세제혜택으로 이탈하는 프로덕션들>

### 한시적인 세제혜택 Section 181

- 고용 창출 정책과 해외로 떠나는 프로덕션을 막기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영화로비스트들에 의해 추진되어 2004년부터 2011년까지 실행되었던 세제혜택으로 영화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에게 50%~100%까지 세제혜택을 주는 제도.
- 예를 들어 투자자가 미국 내에서 제작되는 영화에 투자할 경우 35%의 세제혜택을 받고, 미시간에서 촬영할 경우 미시간주로부터 40%, 영화배급 후 나오는 수익의 9%에 대한 세금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영화의 75%이상이 미국에서 제작되어야하며, \$15~\$20 Million (150억~200억)의 제작비용, 그리고 2011년 12월 31일 전에 프로덕션이 시작되었어야하는 조건이 있으나, 위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언제 영화가 완성되던지 Section 181의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특히, 이 세제혜택이 끝나는 2011년 말 까지 많은 독립영화와 저예산의 영화들이 이 혜택을 받기 위해 크랭크인을 하였음



<오바마대통령이 Section 181을 2011년 말까지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하는 장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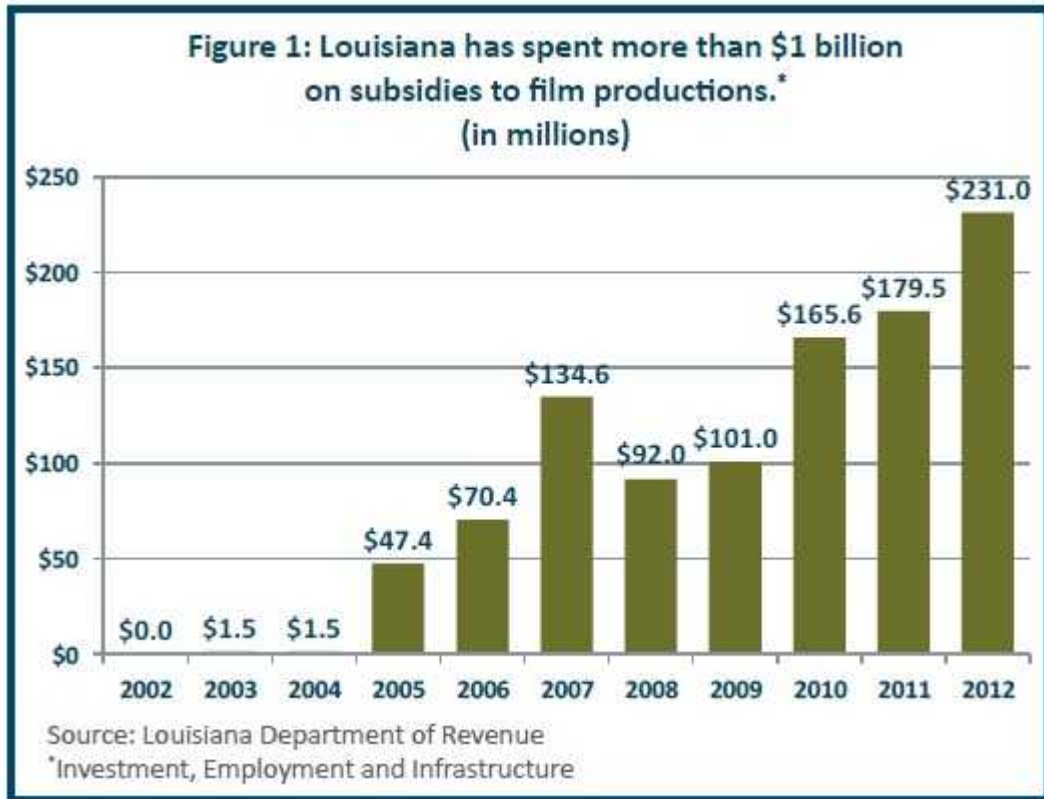
## ■ 미국 내 주 정부별 영화 산업 세금혜택

### ○ 조지아

- 영화 제작에 20%의 기본 세금혜택이 주어지며, 조지아주를 홍보할 경우 10%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단, 5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만 세제 혜택이 가능함
- <블라인드 사이드>의 경우, 조지아주에서 촬영하였고, 조지아주 홍보를 통해 10%의 추가 세금혜택을 받았음
- 조지아주에는 선셋리뷰 프로그램이 없음

### ○ 루이지애나

- 루이지애나에서 쓰이는 영화 제작 비용 30% 및 5% 고용비용에 세제 혜택이 주어짐
- 3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에만 세제 혜택이 가능
- 루이지애나주의 경우, 세제혜택으로 인해 영화 프로덕션이 증가하는 추세
- 루이지애나에는 선셋리뷰 프로그램이 없음



<루이지애나의 영화세금혜택 증가표>

## ○ 미시간

- 현재 미시간은 제정적자와 주지사의 예산삭감으로 세금혜택을 대폭 삭감하였으며, 이로 인해 많은 프로덕션들이 영화제작을 중단하거나 타주로 영화제작을 옮기는 실정임
- 특히, <어벤져스>는 제작 도중 타주로 옮겨졌는데, 이처럼 세금혜택이 영화제작 재정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주고 있음
- 2007년 미시간 내 영화 제작 규모가 200만 달러에 불과했지만, 40% 이상의 세금혜택으로 인해 2008년에는 1억 2,700만 달러 이상의 영화 제작 비용이 프로덕션에 관련된 사업, 로케이션, 영화에 관련된 종사자들의 일자리, 음식, 호텔, 관광 등의 경제활동에 쓰였음
- 2009년에는 85편의 영화제작과 더불어 2011년 <트랜스포머>까지 미시간에서 촬영하며 미시간주의 홍보는 물론 경제활동에도 큰 도움을 주었음



## ○ 뉴멕시코

- 25%의 세금혜택이 있으며 영화를 비롯 모든 공연물에 혜택을 주고 있음
- 뉴멕시코에는 선셋리뷰 프로그램이 없음



<어벤져스 촬영 장면, 뉴멕시코 스튜디오에서 그린스크린>

- 영화 <어벤져스>는 2,200만 달러의 세금혜택을 받고 8,800만 달러의 제작비용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뉴멕시코주에 큰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었음

## ○ 콜로라도

- 콜로라도 주에서 10만 달러를 영화와 관련하여 사용할 경우 콜로라도 정부로부터 10%(1만 달러)를 돌려받으며, 현지 고용인 월급의 10% 세금 혜택을 주고 있음
- 콜로라도의 고용인이 25%, 그리고 75%의 프로덕션 비용이 콜로라도 주에서 사용되어야만 이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아름다운 배경과 지리적인 조건으로 광고 혹은 저예산의 영화들의 촬영과 영화제작지로 인기가 있으나 다른 주에 비해 세제혜택이 크지 않음

## ○ 뉴욕

- 30%의 프로덕션비용과 프로덕션 건물투자의 4%~5%의 세금혜택
- 2009년에는 \$75 Million, 2010년에는 \$85 Million, 2011/2012년에는 \$90 Million, 2013년에는 \$110 Million 의 세금혜택비용을 적용하고 있음
- 뉴욕은 선셋리뷰 프로그램이 2013년 12월 31일에 예정됨

## ○ 노스캐롤라이나

- \$250,000이상 쓰여 질 경우 25%의 프로덕션 세금혜택이 있음
- 최고 \$7.5 Million의 혜택이 프로젝트 당 책정되어있음
- “The Hunger Games” 이 제작되었으며, 이로 인한 경제와 홍보효과가 있었으며, 특히 뉴멕시코, 캐나다와 경쟁해서 프로덕션을 유치하는 데 성공하였음
- 현재 마블스튜디오의 “Iron Man 3” 와 TV 시리즈 “Banshee” 를 비롯한 10개의 프로덕션이 제작되고 있음
- 노스캐롤라이나는 선셋리뷰 프로그램이 2013년 12월 31일에 예정됨

## ○ 유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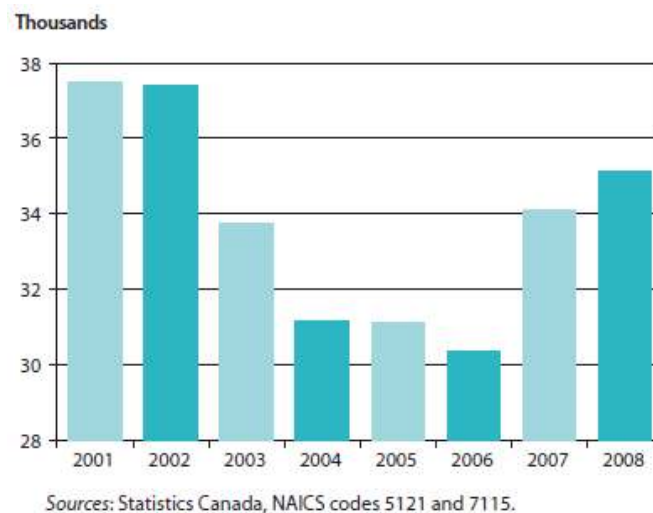
- 선댄스 영화제로 유명한 유타주에서는 \$1 Million을 사용할 경우 20%의 세제혜택을 주고 있으며, \$1 Million 미만에는 15%, 그리고 프로덕션과 관련된 판매 세금은 모두 공제해 주고 있음
- 30일 이상 체류 시에는 체류 시에 발생하는 세금 역시 공제해 주고 있으며, \$15.5 Million의 재정이 확보되어 있음
- 극장용, TV 그리고 광고에도 세금혜택을 주고 있지만, 100% 파이낸싱이 완료되어 있고 주에서 인정된 작품에만 적용됨
- 디즈니 영화 “John Carter” 는 극장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유타에서 촬영된 연유로 큰 경제적인 효과를 보았음

### 3. 해외 영화산업 세제혜택 현황

#### ■ 영화 제작 장소로 각광받고 있는 국가

##### ○ 캐나다

- 1913년 영화를 제작해온 캐나다는, 1952년 처음 외국영화제작과 더불어 세제혜택과 제정보조를 계획적으로 발전시켜왔으며, 2008년에는 \$8 Billion 이상의 경제수익을 창출할 정도로 큰 성장을 하였음.
- 몬트리올, 밴쿠버, 토론토를 중심으로 한 프로덕션은 로스앤젤레스와 뉴욕을 제외한 가장 큰 중심지로 발전하였으며, 가장 큰 요인으로는 세제 혜택, 미국과 같은 언어, 저렴한 인건비와 환율을 들 수 있음
- 지역에 따라 혹은 프로덕션에 따라 최고 40%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매우 파격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 있음



#### <캐나다 내 영화산업 종사자들>

- 캐나다는 프랑스, 영국, 아일랜드, 오스트레일리아, 뉴질랜드 등 53국과 공동제작 협력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도움을

### 주고 있음

- 50개 이상의 사운드스테이지 중에 날씨를 조정할 수 있는 곳을 비롯한 최첨단의 시설에도 큰 투자를 하여 제작자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되어, “Mummy”, “300”, “Get Smart”, “Beastly” 등의 영화들이 미국 할리우드가 아닌 캐나다에서 촬영하고 제작하였음
  - ※ 사운드스테이지란, 촬영과 녹음이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계된 스튜디오
- 정부 주도로 현지인들의 교육과, 장학금 지원을 통해 충분한 인력을 확보하여 35,000명 이상이 영화와 관련된 일에 종사하고 있음

### ○ 캐나다 내 소니 프로덕션

- 2010년 밴쿠버에 스튜디오를 연 소니는 “The Smurfs”, <개구쟁이 스머프>, “Men in Black 3” <멘인블랙 3>, “The Amazing Spider-Man”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등을 제작한 팀들을 흡수하였으며, 최근에는 16,000 스퀘어피트의 공간을 늘려 “Hotel Transylvania” 를 제작하였음
- 토론토 영화제를 시작으로 9월28일 개봉한 “Hotel Transylvania” 는 1,168(개) 애니메이션 신 (Scene : 한 장면에서 다른 장면으로 바뀌는 것을 하나의 신이라고 함) 이 있으며 그 중 694개(60%)가 밴쿠버에서 제작되었음
- 캘리포니아 LA 컬버시티에 있는 소니 스튜디오와 캐나다 소니 스튜디오는 데이터센터와 직접 연결되어 있으며, 제작비용 중 40%가 캐나다 세금혜택을 받고 있음

### ○ 뉴질랜드

- 미국과 캐나다뿐만 아니라 영국과 뉴질랜드 역시 영화산업에 대한 정부보조와 세금혜택은 미국 못지않은 공격적인 혜택을 주고 있음
- “The Lord of the Rings” 로 유명한 Peter Jackson 의 “The Hobbit” 은 워너브라더스에서 \$500 Million의 제작비용을 예상하고 정부보조와 세제혜택이 많은 곳으로 프로덕션을 옮겼음

- 뉴질랜드의 수상 “John Key” 는 \$25 Million의 정부보조금과 최저임금 인상 등의 법률 수정을 통해 워너브라더스 스튜디오와 전략적 파트너로 발전할 것을 선언함으로써 영화 “The Hobbit” 3부작의 대부분을 제작하게 됨
- 뉴질랜드는 이밖에도 “The Lord of the Rings” 를 비롯한 많은 작품들을 제작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에서 도움을 주고 있으며, 특히 Weta와 같은 포스트프로덕션 지원을 통해 앞으로도 많은 제작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 해외 영화산업 세금혜택

### ○ 오스트레일리아

- 극장용 영화에 대한 40% , 다큐멘터리 혹은 TV 프로덕션에 대한 20% 세금혜택
- 로케이션에 15%, 포스트 프로덕션에 15% 세금혜택
- 자국프로덕션이나 외국프로덕션에 모두 세제혜택이 주어짐
- 선셋리뷰 : 없음

### ○ 독일

- 16%~20% 세제혜택과 무상지원 혹은 재정을 정부차원에서 보조하고 있음
- 자국프로덕션이나 현지법인을 세운 프로젝트만 지원하고 있음
- 선셋리뷰 : 2012년 12월 31일

### ○ 영국

- 사용금액의 25%에 대한 세금혜택이 극장용 영화에 적용되며 공동제작 영화에도 혜택을 주고 있음

- 선셋리뷰: 없음

## 4. 정리 및 시사점

### ■ 세제혜택으로 인한 영화산업 활성화

- 독립영화와 전반적인 엔터테인먼트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미국의 각 주정부가 지원하기 시작한 세금혜택은 이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조건으로 발전하였으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 있음
- 미국 주정부의 세제혜택은 결국 고용시장 및 경제 활성화에 직접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으며, 궁극적으로 영화산업에 발전을 가져오는 역할을 하게 됨
- 소니, 디즈니 등 대형스튜디오를 비롯해 중·소형 프로덕션이 영화제작을 위해 캘리포니아가 아닌 다른 주나 캐나다 혹은 다른 나라로 이탈하는 반면, 다른 주에서 캘리포니아 들어오는 경우도 있으며 이는 많은 프로덕션들이 가장 좋은 세제혜택과 환경을 찾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캘리포니아를 떠나는 프로덕션을 잡거나 다른 주의 프로덕션을 불러들이는 노력을 하는 동안 다른 주나 다른 나라들도 더 좋은 세제혜택과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 전 세계가 잡지, 미디어, 영화제 등을 통해 영화산업의 경제활동에 도움을 주려는 노력은 계속 진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미국 각 주는 세제혜택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음
- 세제혜택을 통한 영화산업의 지원은 어떠한 형태로든 계속될 것이며,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국의 영화산업 발전과 외국 영화 공동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상됨
- 이러한 현재의 추세는 더욱 가시화 될 것이며, 영화산업에 대한 세제혜택은 정부와 영화종사자, 투자자등 이 사업과 관련된 관계자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큼